

中企 중대재해법 2년 연장… 원격진료 개념 명확화 등 추진

중기부, 中企 150대 킬러규제 선정
경제규제 혁신 TF 통해 개선 나서
산업화·신기술 부문 43건 ‘최다’

전통주 범위 확대, 숙박규제 완화 등
소상공인 분야 킬러규제로 꼽혀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 스타트업, 벤처기업, 중소기업의 발목을 잡는 ‘150대 킬러 규제’를 선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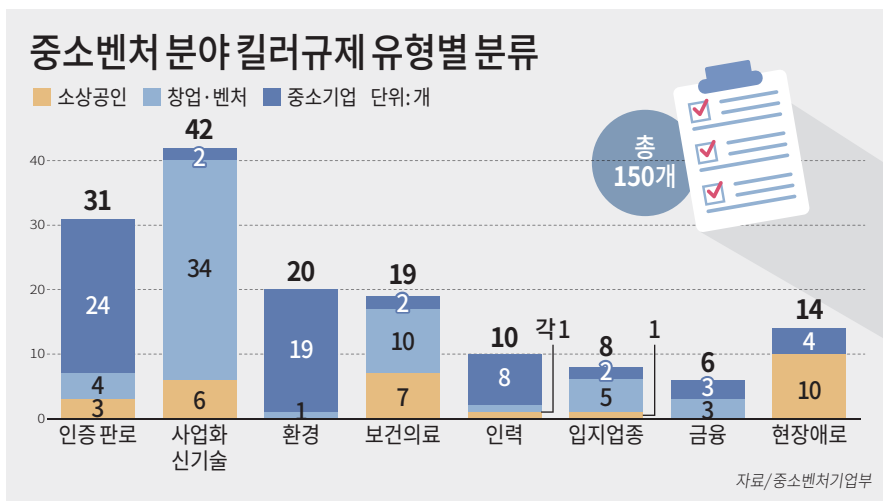
이를 중심으로 경제규제 혁신태스크포스(TF) 등 범부처 협의체를 통해 신속하게 규제 개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4일 중기부에 따르면 그동안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벤처기업협회 등을 통해 총 1193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건의받았다.

중기부는 또 ‘킬러규제TF’를 통해 3차례의 ‘규제뽀개기’도 진행한 바 있다.

중기부가 우선 선정한 150대 킬러 규제에는 산업화·신기술 부문이 42건으로 가장 많고, 인증·판로(31건), 환경(20건), 보건·의료(19건) 등의 순이다. 건의 단체별 대상은 중소기업이 64건, 창업·벤처가 58건, 소상공인이 28건이다.

중소기업 분야의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유예기간 연장 및 합리화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세분화 및 세율



인하 ▲색깔만 달라져도 새로 받아야 하는 KC인증 ▲고령친화 우수제품 지정 기준 개선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절차 개선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 금액 적정성 검토 ▲중소기업 폐기물처분 부담금 감면 대상 기준 확대 또는 개편 ▲낙후 접경지역 공장 신·증설 규제 부담 경감 등의 내용이 두루 포함됐다.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기간 완화는 중소기업계가 목소리를 높여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다. 그동안 중소기업계에선 이와 관련해 50인 미만 기업에 대해선 유예기간을 최소 2년 더 연장하고, 처벌 대상이 되는 사업주의 의무내용과 범위를

더욱 명확하게 줄 것을 주장했다.

아울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지원사업도 업종 구분 없이 같은 내용을 지원하던 것을 업종별 맞춤형 컨설팅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같은 제품인데도 색깔별로 따로 받아야 하는 유아용 섬유제품에 대한 KC인증을 제작과정 및 원자재가 같을 땐 색상만 달라도 별도 시험없이 같은 모델로 인정해달라는 목소리도 높다.

경기도에 있는 한 유아용 의류제조업체 관계자는 “우리는 5가지 색상의 유아용 내복을 주력 상품으로 하고 있는데, 공정이 같은데도 색깔이 달라 인증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면서 “어린이용품

에 대한 안정성 인증 기준을 완화해달라는 뜻이 아니다. 같은 공정이면 색깔이 달라도 인증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벤처·창업기업 분야에선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 투자한도 총액 제한 완화 ▲의료법상 원격진료 범위 및 개념 명확화 ▲벤처스타트업 현실에 맞춘 기업부설연구소 요건 완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서 의약품 배송 허용 ▲반려동물 비대면 진료 활성화 ▲AI 활용 법률서비스에 대한 변호사법 동업금지 규정 완화 ▲드론 안전성 인증의 형식승인 허용 및 기관 확대 ▲1인 창조기업 업종제한 규제 완화 ▲벤처기업직접시설 입주기업 자격 개선 등의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원격진료나 IT를 활용한 법률서비스 등은 의사, 변호사 등 기득권 세력과 벤처·스타트업 분야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분야다.

벤처업계 관계자는 “온라인 플랫폼은 비대면 디지털 경제 시대에 공급자와 소비자를 잇는 필수 요소인 만큼 건전한 시장경쟁을 보호할 수 있도록 기득권 세력 부담 규제 감시를 강화해야 하며, 플랫폼 스타트업을 견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법의 테두리

안에서 공정 경쟁할 수 있는 플랫폼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새로운 법률서비스 역시 국내 리걸테크 산업 발전을 위해 변호사법을 개정, 리걸테크 기업들이 법적 리스크 없이 영업할 수 있도록 하고,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이 법률시장에 접목돼 소비자들이 그 편익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 분야는 ▲다양한 전통주 제품개발을 위한 전통주 인정 범위 확대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장 면적 제한 완화 ▲수제맥주 제조 재료 허용품목 확대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도심 숙박규제 완화 ▲온누리상품권 제한업종 완화 ▲통신판매업 폐업절차 간소화 ▲소상공인 폐업 신고기한 연장 등이 ‘킬러규제’로 꼽혔다.

이 가운데 전통주는 해당 지역 특산주에 대한 원료 생산지 규제가 심각한 상태다. 해당 지역 외에서 나오는 원료를 전통주 제조에 활용하면 전통주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입접지 외의 원료를 일부 사용한 경우도 전통주로 인정할 수 있도록 인정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게 현장의 목소리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청년 창업기업에 강원도 이전비용 지원

중진공 청년창업사관학교
‘넥스트 유니콘 프로젝트’ 기업 모집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청년창업사관학교가 ‘2023 강원 넥스트 유니콘 프로젝트’에 참가할 기업을 모집한다.

4일 중진공에 따르면 오는 9월18일까지 모집하는 강원 넥스트 유니콘 프로젝트는 지역경제 균형발전을 위해 2019년부터 매년 추진해온 것으로, 청년창업기업이 강원지역으로 이전해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중진공과 강원랜드, 지방시대위원회,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한국관광광업공단과 함께 운영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모집대상을 기존 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기업 뿐만 아니라 중진공 청년전용창업자금 수혜기업까지 확대했다.

공개경쟁 선발방식으로 서류 심사와 본선 심사, 그리고 결선 심사를 거쳐 지원기업 3개사를 최종 선정한다. 본선진출 기업은 지자체 현장조사를 통해 이전할 부지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할 기회를 부여받고, 발표심사에 대비한 코칭도 이뤄질 예정이다.

최종 선정기업은 ▲기업 당 최대 10억원의 지원금(강원랜드 출연) ▲정책자금 융자·투자연계 등(중진공) ▲상생 프로그램 연계지원(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폐광지역진흥지구 대체산

업용자지원 우대(한국관광광업공단) ▲이전기업 보조금 지원 및 세제감면(지자체)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다만, 최종 선정기업은 선정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본사, 공장 중 1개 이상을 강원도 태백시, 삼척시, 영월군, 정선군 중 한 곳으로 이전해야 한다.

중진공 조찬고 인력성장본부장은 “강원 넥스트 유니콘 프로젝트는 지자체와 유관기관이 손잡고 청년 스타트업의 혁신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지원하는 뜻깊은 사업”이라며 “중진공은 우수기업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뒷받침하는 기동으로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소진공, 재도전특별자금 지원대상 확대

창업 3년→7년 소상공인 기준 완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고금리 등으로 원활한 자금 공급이 어려운 재창업 소상공인과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인정범위 등을 넓혔다.

먼저, 재창업 유형 중 ‘초기단계’의 지원 대상을 확대해 기존 재창업 업력 3년 미만 소상공인에서 7년 미만 소상공인으로 업력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폐업기업의 매출실적 기준도 개편하며 휴업 후 영업을 재개하거나 업종을 전환한 경우도 지원대상으로 포함했다.

채무조정 유형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성실상환 소상공인도 지원대상으로 인정하고, 채무조정 이후 6회차 이상 성실상환자에 대해 최근 3년 이내 성실상환 원료 소상공인도 지원대상에 포함했다.

소진공은 이번 조치를 통해 재창업 소상공인과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인정범위 등을 넓혔다.

먼저, 재창업 유형 중 ‘초기단계’의 지원 대상을 확대해 기존 재창업 업력 3년 미만 소상공인에서 7년 미만 소상공인으로 업력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폐업기업의 매출실적 기준도 개편하며 휴업 후 영업을 재개하거나 업종을 전환한 경우도 지원대상으로 포함했다.

채무조정 유형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성실상환 소상공인도 지원대상으로 인정하고, 채무조정 이후 6회차 이상 성실상환자에 대해 최근 3년 이내 성실상환 원료 소상공인도 지원대상에 포함했다.

/김승호 기자

SK매직
베이지색 ‘컬러 인덕션’ 출시

SK매직이 고객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블랙과 화이트 글라스에 이어 베이지 색상의 ‘보더리스 라이트 더 컬러 인덕션’을 출시했다.

이 제품은 지문, 열록, 각종 스크래치 등이 눈에 보이지 않도록 하는 프리미엄 글라스를 적용해 항상 새 제품처럼 깔끔하게 사용할 수 있다.

화력은 3400W로 3구 모두 국내 최대 화력을 제공한다.

고성능 IH코일이 빠르고 강력하게 열을 전달하며 초고화력을 제공하는 ‘파워부스트(Power Booster)’ 기능이 있어 많은 양의 요리도 단시간에 빠르게 조리할 수 있다.

/김승호 기자

유클리드소프트 ‘데이터 사업화 기업’ 선정

기보, 가치금액 내 보증지원

기술보증기금이 쓰레기 무단투기 데이터 분석기술을 보유한 유클리드소프트를 ‘제1호 데이터 사업화 기업’으로 선정했다.

4일 기보에 따르면 데이터의 경제적 가치를 산출하고 가치금액 내에서 보증을 지원하는 ‘데이터 가치플러스보증’ 상품을 최근 출시한 바 있다.

출시 후 관련 보증 지원 1호 기업으로 뽑힌 유클리드소프트는 빅데이터 분석 전문기업으로,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용 CCTV에서 확보한 영상데이터를 인공지능(AI) 알고리즘으로 분석해 축적함으로써 행동패턴을 통해 무단투기 외에 다양한 위험을 감지하고 경보하는 보안 시스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기보는 신청기업이 갖고 있는 데이터 분석기술에 대해 ▲기술 및 데이터의 수준 ▲데이터 기술의 파급성 ▲데이터



부산에 있는 기보 본사.

활용산업 시장규모 ▲데이터 기술의 경쟁력 ▲사업타당성 및 수익전망 등 다양한 항목을 면밀히 분석하여 데이터의 경제적 가치를 산출했다.

유클리드소프트는 기보의 보증을 이용하고 있는 기업으로 일반 평가보증으로는 추가자금조달이 어려웠지만 데이터에 대한 기술사업화 기여도를 반영하는 새로운 가치평가방법론이 적용됨으로써 최종데이터가치 평가금액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김승호 기자

창진원, 창업기업 제품 판로지원 나서

‘공공구매 네트워킹 데이’ 개최

창업진흥원이 창업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4일 충북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커뮤니케이션센터에서 ‘창업기업제품 공공구매 네트워킹 데이’를 개최했다.

공공구매 네트워킹 데이는 창업기업에게 조달시장 진출을 위한 정보와 공공기관과의 소통의 기회를, 공공기관에게는 수요에 맞는 창업기업 제품을 발

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행사는 창업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 도입 이후 창업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창업기업과 공공기관과의 연결을 위해 진행하던 기존의 구매담당회를 확대한 것으로, 공공조달시장 진출 준비지원을 위한 ‘조달 실무교육’, 조달역량 강화를 위한 ‘1대1 멘토링’, 그리고 공공기관과의 간담회까지 포함됐다.

/김승호 기자